자기 따로 주인공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

☞19면에서 계속

으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 이런 모든 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으로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생사에도 교훈이 있지마는 한 찰나에 살아나가는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모두 대치를 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땅 위로 올라와서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로서 시련을 또 당해야 되고 그 시련을 다 넘어감으로써 진화돼서 인간으로 형성되는 거죠. 사람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입니다. 짐승에서 갓 나온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세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느끼고 알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생명들을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살생하지 말라.' 모두 이런 말들을 하셨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리로 태어나면 이 부모가 내 부모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요, 이렇게 되니까 모두 한 번씩 안 겪어본 분들이 없어요. 부모가 안 돼본 분들이 없고 자식이 안 돼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만 보고서 어찌 남을 업신여기겠느냐는 얘깁니다. 참, 내가 그거는 말로도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버선목이니 뒤집어보일 수도 없고…. 나만 답답한 게 아니겠죠. 상대방들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더불어 나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보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답답하게 "아, 주인공에다가 관했는데도 안됩니다. 잘되다가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아이, 참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도 그대로 있는 물건이 없고요. 말도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만이 고정되게 말을 하는 것도 없고요. 보는 것도 그렇고 모두 일체 만법이 다 고정됨이 없죠. 그런데 어찌 되는 것만 되고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있어야 그 시련 속에서, 되는 거 안되는 거 그 가운데서 깨닫죠?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그 한 구멍으로 들고 나는 데에 지금 행을 하는 겁니다. 그 행이 없다면 바로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아라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고 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어서 또 딴 부처님을 찾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저지르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지금 하고 가고 있으니까 모두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자식 분들에게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아마 훈계하실는지도 모르죠.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도리가 많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여러분이 행하고 과거로부터 행하고 왔던 거 지금도 행하고 가는 거, 여러분이 하고 있지 누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 그 자리에 모두 되놔라
> 잘 하는 건 감사하게 놓고
> 잘못하는 건 잘하게
> 굴려서 놔라 하는 것이
>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다가 발부릴 채여서 피가 나도 여러분이 각자 "아이고!" 하고, 자기가 그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보현신이 돼서 자기를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줄 리가 없죠. 딴 사람이 만져주기는 할지언정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생활 자체에서 아프고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행한 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둬라. 너만이 거둘 수 있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낸다면 감응이 되겠죠. 이것이 차차차차 감응이 돼서 커진다면 이게 바로 성품을 발견해내는 도립니다.

무조건 "나는 주인공에 관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하! 진짜로만 했으면 왜 안되겠습니까, 또. 만날 자기 이외의 주인공으로 아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라는 걸 어찌 모릅니까? 자기가 하고 자기가 거두는 걸 어찌 모릅니까? 세계적으로 종교를 모두 믿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타신에게 기도하고 상대를 보고 믿고 찾게끔 전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물속에서도 헤매고 물속에서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그 회오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도 죽고 사는 걸 헤아리지 못합니다. 또 자식을 낳고 알을 낳고도 다 그냥 몸소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고 이러는 시련을 겪으면서 진화가 돼서 땅 위로 올라왔어도, 땅 위에서도 지금 물주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형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형상을 믿거나 딴 데 이름을 믿거나 허공을 믿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서도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득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알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방식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은 한 구멍이니까 그 한 구멍에다 놓고 가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인공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들 생각해보세요. 즉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의 이름!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끝없이 돌아가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 죽는 법은 없죠.

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 네 머리가 잘못 돌아가서 잘못된 거라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모든 거를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 '주인공!' 하면 전체 거기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속의 생명의 의식들도 모습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주인공 하나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품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감응도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 보인다 들린다 이런다면 그건 미치는 발광쟁이가 되죠. 내면의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정의정당하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했는데도 왜 안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디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이끌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알고 모르고 간에 발견이 돼서 해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감응이 돼서 희미하더라도 '아, 이거로구나!' 하고 알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공부를 해도 그 도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주인공이 전체 하는 일을 주인공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됐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다 소멸되면서 새로이 넣는 그 입력이 새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수차에 걸쳐서 해드렸는데도 그게 납득이 잘 안되고 그러죠?

하여튼 아주 오늘,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것,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며 그 주인공이 일체를 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하고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아십시오. 그런데 일체를 다, 그 주인공놈이 한 거니까 '주인공놈 너 알아서 잘 이끌어가야 하지 않아!' 하고 거기다 되놔라, 되놓는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부처를 찾기에는 너무 이르고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한다면 스스로 성품이 살금 살금 살금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일러드렸는데도 허겁지겁하고 부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허겁지겁 그냥 날뛰고, 허겁지겁 아무 이름이나 부르고 무꾸리나 하러 다니고, 급하면 그냥 아무한테고 다니면서 묻고, 아무 절에나 이리저리 그냥 다니면서 기복으로 물들고, 이렇게 하신다면, 십 년

> 어찌 되는 것만 되고
> 안되는 거는 없으리까
> 안되는 것도 있어야
> 그 시련 속에서
> 되는 거 안되는 거
> 그 가운데서 깨닫죠

이십 년이 가도 절대로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품을 발견치 못한다면 외도로 전락되죠. 깨친 자유인들은 절대 무슨 '선을 닦는다' 이런 것도 없고, '정진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그 대신에 악법도 짓는 것도 없고 범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수억겁을 겪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억겁을 모두 내려가 보십시오, 어떠한가! 어떠한 시련과 치욕을 겪고 올라오는가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겪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각색의 사생들이 다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서 전부 꺼내줘도 즐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서 어떠한 짐승이 원하고 벌레가 원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벌레 속에 응신으로 드셔서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진화가 되게 만드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레가 원했을 때 응신으로서 응할 때에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관세음보살이 됐을 때 '내가 요런 때 부처다' 이럴 수도 없고, 또 병자가 원했을 때에 약사로 응신이 돼서 응해주실 때에 '내 요런 때 부처다' 요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래다,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요, 부처가 아닌 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작위 없는 바로 자유인이 돼야 하는 거죠. 어떠한 집착을 한다면 그냥 가차 없이 허용치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자기가 뭐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깐 내가 이거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자유스럽겠습니까. 좀 해보세요, 어떤가. 뜨거운 물이다, 찬 물이다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깐요. 먹어봐야 알죠?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의 떡과 유의 떡을 한데 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거와, 유의 떡도 착이 끼어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먹고 조건 조렇게 먹고 하며 그것도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죠. 여러분, 지금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할까요?

이거를 잘 듣고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그대로 듣고 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은 그냥들 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들 사는 거와 함이 없이 살림을 하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기저기다가 착을 두지 말고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자길 믿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한테 그냥 다 맡기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없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2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쌍 화 차

피로회복 감기예방에 좋은 쌍화차를 엄선된 약초로 정성들여 끓여 여러 불자님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일물산에서는 일산 수연제, 인사동 모란, 여의나루 하나찻집 등 전통찻집과 각지에 계신 일반 고객들께도 좋은 반응을 얻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저 알리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팩 ➡ 35,000원 60팩 ➡ 60,000원 [배송료 포함]

❖ 氣를 바로 알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전 부터 인체 · 나무 · 동물에 어떤 에너지를 접촉했을때 그 변화하는 기운을 시각 촉각 등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되는 능력을 얻어 그동안 저에게 인연이 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지면을 통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체질개선이 아닌 현재 상태의 기운을 통해 어떤 에너지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 내므로 즉시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내 몸에는 어떤 식품이 맞을까?

내가 먹고 싶은 식품(곡식, 야채, 과일, 고기류, 생선류, 약, 약초, 건강식품)이 내몸에 맞는지 즉석에서 판별해 드립니다. O-Ring테스트나 L로드, 팬드릭 같은 인위적인 매개체 없이 세포가 반응하는 것을 즉시 읽어내므로 틀림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통증과 피로감 불편함에서 벗어날까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내어 거기에 맞는 식품, 약초, 건강식품 등을 맞춰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몸에 맞는 기능성 맞춤 한방차를 이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예

- 어린이 : 분유, 이유식 제품선택
- 아토피 허약체질 : 기피음식 분류
- 청소년 :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품 분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한방차 선별
- 직장인 : 스트레스, 피로회복, 숙취해소에 필요한 식품 한방차 선택
-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 어느 경락의 부조화인지 상담

건강식품, 약초 약재, 신약등을 연구하시는 분께는 인체 적용 반응을 이용하시면 높은 효능과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공동연구도 가능합니다.

세일물산 02)965-4413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체의학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대한불교선밀종
임원, 종도를 모십니다

대다수의 종단이 선교양종 이거나 밀종으로 이루어진 한국불교에 해동대선사인 원효성사를 종조로 밀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지향하는 선밀종을 창종 하고자 발원하니 사부대중의 동참을 바라며 특히 한국 전통적 불법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에 널리 알릴 임원, 대덕스님, 종도 분들과 인연 닫기를 바랍니다.

비영리종교단체(칠곡군 : 37451-00292)
비영리종교단체고유번호(513-82-65714)

입종구비서류
- 본종 입종(포교소 등록)신청서
- 서약서, 승려증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연 락 처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 1동 188-7번지(관정사)
☎ 054)976-0405 / FAX 054)976-4405
▷입종상담 : 010-3134-8484
054)976-0405(원묵)

大韓佛教禪密宗
TEL 054)976-0405 FAX 054)976-4405
www.sunmiljong.or.kr